

특수목적 영어(ESP)로서의 스포츠 영어 교육: 스포츠관련 분야 학생들의 자기인식을 중심으로

Sports English Education as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ESP)

김지은, 유호
가톨릭 관동대학교

Ji-Eun Kim(jieunkim@kd.ac.kr), Ho Yoo(yooho@kd.ac.kr)

요약

본 연구는 스포츠 관련 학과 대학생들의 영어와 스포츠 영어 수업에 대한 자기 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스포츠 영어 수업에 대하여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스포츠 관련 전공 4학년 학생 133명이 설문에 응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스포츠 전공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흥미 정도는 비교적 낮았는데, 이 흥미도는 영어 실력이나 다른 항목들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2. 스포츠 전공 학생들의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영어 실력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영어 실력에 자신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흥미도와 관심도와도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3. 스포츠 전공자들에게 영어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그 이유로는 '운동선수나 지도자로서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 가장 많았고 '국제 스포츠 교류나 외교, 행정'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4. 일반적인 영어 수업과 차별화 된 스포츠에 초점을 둔 영어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 이유로는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와 '향후 전공 직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가 가장 많았다.

■ 중심어 : | 특수목적 영어 | 요구분석 | 스포츠 영어 |

Abstract

The present study aims to investigate perceptions of university students who are majoring in sports related fields about the introduction of Sports English education. For this purpose, a total of 133 students were surveyed according to a questionnaire asking about their English skills, opinions and attitudes with regard to English study and Sports English class. The main results obtained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most students' interest in English is relatively low. Hence, students need to be encouraged to have an interest in English taught with special teaching methods; most students do not have confidence in their English; majority of students answered that English study is needed for students of sports. The biggest motivation for the sport students to learn English was 'better communication skills,' followed by 'sports exchange opportunities', 'sports diplomacy and international sports events'; majority of students answered that Sports English class which focuses on sports is necessary in terms of their career after graduation. The finding from this study serves as a foundation in developing an ESP program for sports majors.

■ keyword : | English for Specific Purpose(ESP) | Needs Analysis | Sports English |

I. 서론

오늘날 스포츠와 영어의 관계는 점점 밀접해지고 있다.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월드컵, 2010년 세계육상 선수권 대회, 그리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비롯한 국제 스포츠 경기와 각종 국제 스포츠 이벤트, 국제 스포츠 교류 등에서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본적인 영어 의사소통 능력에서 더 나아가서는 국제 대회를 운영하는 정도의 영어 능력이나 스포츠 외교나 행정, 산업, 스포츠 관련 기사나 방송을 이해하는 능력, 국제학술 대회에서 발표를 할 능력이나 국제 논문에 논문을 발표할 능력도 필요하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스포츠 영어 과목이 체육관련 학과에서 설강되기도 하고 국제스포츠 학과 등이 생기면서 스포츠 영어에 대한 관심이 예전에 비해서는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관광 영어나 호텔 영어, 의학 영어, 경찰영어 등에 비해 그 관심은 미미한 편이며 이에 대한 연구 또한 찾아보기가 힘들다. 관광영어의 경우에는 1962년에 우리나라 대학에서 처음 개설된 이후 전문대학이나 일반 4년제 대학에서 관광영어나 호텔영어의 명칭으로 매우 활발히 개설되고 있고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 또한 의료시장이 개방되면서 외국병원들과의 교류 협력관계가 증대되어 의사소통의 매개인 영어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병원도 해외에 진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나라 의학 연구자들이 국제회이나 학회에 참석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연구 논문을 전문 잡지에 영어로 게재하는 경우가 증가하게 되자 의학영어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2]. 한편, 스포츠 영어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며 특수한 목적에서의 영어(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이하 ESP) 분야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스포츠 영어 교육에 대한 선입견 중의 하나는 스포츠 영어가 일반 영어와 특별히 다른 점이 무엇이 있으며 이를 따로 교육할 필요가 있는지는 아닐까 하는 것이다. 물론 스포츠 현장에서 사용되는 영어가 일반 영어와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스포츠 영어도 잘하는 것은 당연할 것

이다. 그러나 스포츠 영어에서 필요한 단어나 표현들을 일반 영어 교육에서 많이 다루지는 않는 경향이 있으며, 스포츠와 관련된 읽기나 듣기 자료도 많이 다루지 않는다. 그러나 국제 경기에서 자원봉사를 할 때나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서 스포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국제적인 스포츠맨이 되기 위한 선수들이나 올림픽이나 국제 스포츠 협회에서 활동해야하는 사람들, 국제 심판 등이 되기 위한 사람들은 스포츠의 특수성을 고려한 영어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Douglas(2000)이나 Brown(1995)도 특수한 목적에서의 영어(ESP)는 일반 영어(English for General Purposes, 이하 EGP)와는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였는데[3][4], 스포츠 현장에서의 영어도 관광영어, 호텔영어, 의학영어, 항공영어 등과 함께 ESP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이를 위한 별도의 영어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스포츠 영어 교육에 대한 또 다른 선입견은 스포츠 영어 교육이라고 하면 스포츠와 관련된 영어 단어나 표현들을 몇 마디만을 가르치고 암기하도록 하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배드민턴이나 탁구 등 다양한 운동을 하거나 가르칠 때 필요한 표현들이나, 스포츠 안내 데스크나 경기장에서 필요한 표현 등을 가르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 외에도 다양한 스포츠 관련 글을 접하게 하여 읽고 이해하는 것, 스포츠 중계나 스포츠 관련 뉴스를 제공하고 이해하도록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를 어떻게 가르치느냐하는 것이다. 아무리 필요한 표현들을 가르치고 자료를 제공한다고 해도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배울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문법 중심으로 영어를 배웠다면, 실제 영어를 사용해야하는 현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되고, 영어를 사용해야하는 직무는 회피하거나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포츠 관련 학과 대학생들의 영어와 스포츠 영어 수업에 대한 자기 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학에서의 효과적인 스포츠 영어 수업의 형태에 대하여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인식 및 실태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영어에 대한 흥미도
2. 영어 능력에 대한 자기 평가
3. 스포츠 전공자의 영어 학습에 대한 필요 인식도와 이유
4. 스포츠 영어 수업에 대한 필요 인식도와 이유
5. 스포츠 영어 수업에 대한 관심도와 이유
6. 스포츠 영어 수업의 효과에 대한 기대도

II. 특수목적 영어와 스포츠 영어

지금까지 우리나라 영어 교육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왔던 EGP (English for General Purposes)와 달리 ESP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는 보통 ‘특수목적 영어’라고 불리며, 보다 실용적인 교육을 추구한다. EGP는 보통 학습자의 전공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내용이나 교수법으로 교수하는 반면, ESP는 학습자의 전공과 연계하여 학습자들의 요구를 고려하여 교수하게 된다. 이러한 ESP는 현장에서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최근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취업을 중시하고 취업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인재를 요구하는 현실에서는 EGP보다 ESP가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5]. 우리나라에서는 ESP라고 하면 주로 비즈니스 영어를 떠올리게 되는데, 법이나 의학을 위한 영어 교육이나, 좀 더 실용적으로는 관광 영어나 항공영어 등 다양한 직업 현장에서의 영어를 포함한다[6]. 스포츠 영어 또한 스포츠 현장에서 사용되는 영어이기 때문에 ESP, 즉 특수한 목적을 위한 영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에서의 ESP 연구를 보면, 대부분 취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영어 교육이나, 비서나 사무 영어 교육, 관광, 호텔, 항공 영어 교육이 대부분이며[5][7-11] 스포츠 분야에서의 영어 교육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Hutchinson & Waters(1987)에 의하면 ESP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한다[12].

1. 국제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요구

세계 2차 대전이후, 국제적인 규모의 산업과 기술이

발전하고 이에 따라 국제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경제활동이나 사업상의 교류, 학문 교류 등 실용적인 분야에서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스포츠 영어의 경우에도 스포츠 분야에서 국제어의 필요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ESP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 언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접근

영어의 사용이 상황과 사람에 따라 다르고 전통적인 영어 학습 방법으로는 실제 상황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 영어 교육을 좀 더 세분화하여 전공에 따라 영어 교육을 다르게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3. 학습자 중심

영어 학습자가 서로 다른 흥미와 필요성을 갖고 있으므로, 학습자의 동기나 흥미도, 필요성 등을 고려한 전공 분야의 영어 교육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ESP는 다양한 분류체계가 있으나, 크게 학문적인 목적으로 영어를 교수하는 English for Academic Purposes(EAP)와 전문직의 종사나 취업을 위해 영어를 교수하는 English for Occupational Purposes(EOP)의 두 영역으로 구분된다[6][12]. 이중 EAP는 다양한 학문영역의 기초능력으로서의 영어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기 위한 과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학영어나 의학 영어, 법률영어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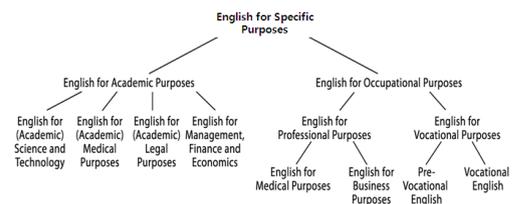


그림 1. 전문 영역에 따른 ESP 분류[6]

EOP 분야는 English for Professional Purposes와

English for Vocational Purposes로 나뉘는데, 이 중 English for Professional Purposes에 하위에 있는 English for Business Purposes는 보통 많이 교육되고 있는 비서영어, 사무영어, 서식영어 등이 포함된다. English for Vocational Purposes의 하위에 있는 Pre-Vocational English는 최근에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취업을 위한 TOEIC, 영어 인터뷰 준비 등이 포함되고, Vocational English는 직업의 준비과정으로 필요한 영어를 배우는 관광영어, 호텔영어, 승무원영어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의 대상인 스포츠 영어 또한 여기에 포함 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특수목적 영어에 대한 연구는, 특수목적 영어 교과의 확대를 위한 모형 제시나 제언을 중심으로 한 연구[5][13]나 특수목적 영어 수업에 대한 요구분석[8][9], 현 특수목적 영어 수업에 대한 평가[14]등으로 나눌 수도 있고, 비즈니스 영어[8], 관광영어[1][9], 취업준비 영어[5] 등의 전공이나 필요성으로 나누어지기도 한다.

III. 연구방법

특수목적 영어 교육 연구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요구분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과목이 설계되고 교수방법도 결정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요구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본 연구의 요구 분석에서는 특수목적 영어교육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위한 최초의 시도라고 할 수 있는 Munby(1978)의 실태 분석과 비슷하게 스포츠 관련 학과의 학생들의 현재 스포츠 영어에 대한 인식 등 실태를 분석하였다[15].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강원도 소재 K대학의 스포츠 관련 전공 대학생 133명이었으며, 모두 4학년에 재학중으로 취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었으며, 영어권 국가에 체류한 경험이 3개월 미만인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스포츠 영어 수업이 전혀 개설되어 있지 않으며, EGP 과목만이 교양영어로 개설되어 있는 상태이다. 본 연구에

서 활용된 설문지는 영어 교육 전공 교수들과 체육 전공 교수들의 도움으로, 스포츠 영어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한다는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문항들은 Likert 5척도로 나눈 문항들이 대부분이었고 5지 선다형 문항들도 있었다. 또한 몇 개의 선다형 문항의 경우는 학생들이 항목을 복수로 선택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총 140부를 배포하여 이 중 불성실한 응답 설문지 7부를 제외한 총 133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분석

1. 스포츠 전공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흥미도

[표 1]은 스포츠 전공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흥미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다소 있음’이 47.3%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별로 없음’ 20.3%로 나타나 많은 학생들이 영어에 많은 관심을 갖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20%가 넘는 학생들이 영어에 흥미가 있거나 매우 흥미가 있다고 답하여 이러한 학생들은 스포츠 영어에도 흥미가 있을 것으로 예측 되었다.

표 1. 영어에 대한 흥미도(n=133)

	전혀 없음	별로 없음	다소 있음	있음	매우 있음
n (%)	14 (10.5%)	27 (20.3%)	63 (47.3%)	22 (16.5%)	7 (5.2%)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흥미도와 영어 실력이나 영어 학습에 대한 필요 인식도 등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한 결과, ‘흥미도’와 ‘영어 말하기 실력’과는 상관계수 .506(p=.000)로, ‘흥미도’와 ‘영어 듣기 실력’과는 상관계수 .413(p=.000)으로, p< 0.05 수준에서 유의미하다고 했을 때 비교적 강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흥미도’와 ‘영어 읽기 실력’과는 상관계수 .297(p=.001)로, ‘흥미도’와 ‘영어 쓰기’는 상관계수 .316(p=.000)으로, 말하기와 듣기 보다 좀 더 약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나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영어공부의 필요성에 대한 인

식'과의 관계 또한 상관계수 .412(p=.000)으로, '스포츠 영어 수업에 대한 관심도'와의 관계 또한 상관계수 .490(p=.000)으로 비교적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스포츠 영어 수업에 대한 효과 기대'와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흥미도'와 '영어 실력 향상 효과 기대' 사이에는 309(p=.000)의 상관관계가, '흥미'와 '스포츠 관련 영어 능력 향상 효과 기대'와는 .304(.000)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와 같이 영어에 대한 흥미도가 다른 항목들과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스포츠 영어 수업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흥미도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2. 영어에 대한 흥미와 다른 항목의 상관관계

	상관계수	유의확률
영어 말하기 능력	.506	.000
영어 듣기 능력	.413	.000
영어 읽기 능력	.297	.001
영어 쓰기 능력	.316	.000
영어 학습의 필요성	.412	.000
스포츠 영어 수업에 대한 관심도	.490	.000
영어 실력 향상 효과에 대한 기대	.309	.000
스포츠 영어 실력 향상 효과에 대한 기대	.304	.000

2. 영어 능력에 대한 자기평가

[표 3]은 스포츠 전공 학생들의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영어 실력에 대해 나타내고 있는데 말하기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80.5%)의 학생들이 외국인과 전혀 대화가 되지 않거나(12.8%) 간단한 인사 정도만 가능하다(67.7%)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학생들이 본인들의 말하기 실력에 매우 자신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듣기의 경우에도 60.9%의 학생들이 외국인이 말하는 것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거나(10.5%) 인사정도만 알아들을 수 있다(50.4%)고 응답하였다. 스포츠 현장에서 영어를 사용 할 경우 말하기와 듣기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학생들이 본인들의 말하기와 듣기 실력에 이 정도로 자신이 없다면 영어를 사용하는 직무는 무조건적으로 꺼리거나 영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자신감의 결여나 실력의 부족으로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경우 특정 학교의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한계점이 있어 이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향후 스포츠영어 수업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거나 교과목을 개발할 경우 학생들의 실력을 반드시 고려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읽기 능력의 경우에는 57%의 학생들이 '거의 읽지 못한다'(4.6%)와 '아주 간단한 글이나 문장은 읽을 수 있다'(52%)에 응답하였고, 쓰기의 경우 89%의 학생들이 '영어로 거의 쓰지 못한다'(19.5%)와 '아주 간단한 글이나 문장은 쓸 수 있다'(69.2%)에 응답하여 많은 수의 학생들이 읽기와 쓰기에 대한 자심감도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3. 영어 능력에 대한 자기평가(n=133)

		n	%
말하기	외국인과 전혀 대화를 못함	17	12.8
	간단한 인사 정도만 가능	90	67.7
	기본적인 대화 가능	24	18.0
	자연스럽게 대화 가능	2	1.5
듣기	전혀 알아듣지 못함	14	10.5
	간단한 인사정도만 가능	67	50.4
	기본적인 대화 이해 가능	48	36.0
	어느 정도 복잡한 말도 이해 가능	3	2.2
읽기	복잡한 대화내용 이해 가능	1	0.7
	거의 읽지 못함	6	4.5
	간단한 글이나 문장은 읽을 수 있음	70	52.6
	영문 편지 등 쉬운 내용은 읽을 수 있음	47	35.3
	신문, 잡지, 전공서적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음	8	6.0
쓰기	아주 어려운 내용도 읽는데 어려움 없음	2	1.5
	거의 쓰지 못함	26	19.5
	간단한 글이나 문장은 쓸 수 있음	93	69.9
	영문 편지 등 쉬운 내용은 쓸 수 있음	13	9.7
	복잡하거나 어려운 글도 어느 정도 쓸 수 있음	1	0.7

본인이 생각하는 영어 능력의 각 기능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말하기'와 '듣기 능력'의 경우 상관계수가 .709(p=.000)으로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말하기'와 '읽기'의 상관계수는 .567(p=.000), '말하기'와 '쓰기'는 .448(p=.000)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한편, '영어 능력'과 '스포츠 전공자들의 영어 학습 필요성'이나 '스포츠에 초점을 둔 스포츠 영어 수업의 필요성' 등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이는 영어 능력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도 스포츠 전공자들에게 영어 학습이 필요하다고는 인식하고 있고, 스포츠 영어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영어 능력’과 ‘스포츠에 초점을 둔 스포츠 영어 수업의 필요성’ 사이에는 유의미하지는 않으나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영어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일수록 스포츠에 초점을 둔 영어 수업을 더 원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4. 영어 말하기 능력과 다른 항목의 상관관계

	상관계수	유의확률
영어 듣기 능력	.709	.000
영어 읽기 능력	.567	.000
영어 쓰기 능력	.448	.000
영어 학습의 필요성	.115	.186
스포츠 영어 수업의 필요성	-.304	.0701
스포츠 영어 수업에 대한 관심도	.278	.001
영어 실력 향상 효과에 대한 기대	.229	.008
스포츠 영어 실력 향상 효과에 대한 기대	.184	.034

3. 스포츠 전공자들의 영어 학습에 대한 필요 인식도와 이유

[표 5-1]을 보면, 스포츠 전공자들에게 영어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33.8%)과 매우 필요하다(30.07)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 스포츠 전공자들에게 영어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표 5-2]를 보면, 그 이유로는 133명의 학생들 중 69명의 학생들이 ‘운동선수나 지도자로서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에 답하여 응답수가 가장 많았고(유효%=30.94), 133명의 학생들 중 61명이 응답한 ‘국제 스포츠 교류나 외교, 행정’이 그 뒤를 이었다(유효%=27.35)

표 5-1. 스포츠 전공자들의 영어교육 필요성 (n=133)

	전혀 없음	별로 없음	다소 있음	있음	매우 있음
n (%)	4 (3.0%)	5 (3.7%)	39 (29.3%)	45 (33.8%)	40 (30.0%)

표 5-2. 스포츠 전공자들의 영어교육 필요성의 이유 (n=223)

	n	유효%
국제대회에서의 자원봉사, 진행과 운영	43	19.2
스포츠 관련 기사나 방송을 이해	24	10.7
국제스포츠 교류나 외교, 행정	61	27.3
국제학술대회 발표나 연구	21	9.4
지도자나 선수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69	30.9

스포츠 전공자들의 영어 학습에 대한 필요 인식도와 스포츠 영어 수업에 대한 관심도 등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한 결과, 필요 인식도와 영어 말하기 실력과는 상관계수 .115(p=.186)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며[표 4], 필요 인식도와 스포츠에 초점을 둔 영어 수업의 필요성은 상관계수 .530(p=.000)으로 강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스포츠 영어 수업에 대한 관심도와와의 상관관계도 상관계수 .580(p=.000)으로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표 6. 스포츠 전공자들의 영어교육 필요 인식도와 다른 항목들과의 상관관계

	상관계수	유의확률
스포츠 영어 수업의 필요성	.530	.000
스포츠 영어 수업에 대한 관심도	.580	.000

4. 스포츠 영어 수업에 대한 필요 인식도와 이유

일반적인 영어 수업과 차별화 된, 즉 스포츠에 초점을 둔, 스포츠 전공자를 위한 영어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문 항목에 대해서는 ‘다소 필요하다’가 45.1%로 가장 많았고 ‘필요하다’가 22.6%로 그 뒤를 이었다[표 7-1]. [표 7-2]를 보면, 그 이유로는 133명의 학생들 중 55명의 학생들이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에 답하여 응답수가 가장 많았고(유효%=28.4), 133명의 학생들 중 54명이 응답한 ‘향후 전공 직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가 매우 근소한 차이로 그 뒤를 이었다(유효%=27.83).

표 7-1. 스포츠 영어 수업의 필요성 (n=133)

	전혀 없음	별로 없음	다소 있음	있음	매우 있음
n (%)	4 (3.0%)	20 (15.0%)	60 (45.1%)	30 (22.5%)	19 (14.2%)

표 7-2. 스포츠 영어 수업 필요성의 이유 (n=194)

	n	유효%
취업에 도움	55	28.3
향후 전공 직무에 필요	54	27.8
영어 자원봉사에 도움	29	14.9
스포츠 관련 기사나 방송을 이해	15	7.7
외국인과 스포츠 관련 의사소통	36	18.5

5. 스포츠 영어 수업에 대한 관심도

[표 8]은 스포츠 영어 수업에 대한 관심도에 대한 결과는 나타내고 있는데 ‘다소 있음’이 48.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별로 없음,’ 23.3%로 나타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리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으나 관심을 갖는 학생들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위에서 많은 학생들이 스포츠 영어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반면, 스포츠 영어 수업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나타났는데, 흥미도와 스포츠 영어에 대한 관심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기[표 2], 영어 능력과 스포츠 영어 수업에 대한 관심도 사이에도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표 4],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흥미도를 높이고 기본적인 영어 실력 향상을 시켜 주는 것이 스포츠 영어 수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사료된다. 또한 스포츠 영어 수업에 대한 관심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43명의 학생들이 응답을 했는데, 가장 많은 학생들이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따라가기 힘들어서’라고 응답했고(34.8%) ‘영어에 관심이 없어서’가(27%)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전공과 관련이 없어서’나 ‘향후 전공 관련 직무에서 영어를 사용할 일이 없을 것 같아서’는 매우 적은 수의 학생들만 응답하여, 학생들이 스포츠 영어 수업에 관심이 적은 이유가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본인들의 영어 실력이 부족하거나 흥미가 없어서라는 것을 뒷받침한다.

표 8-1. 스포츠 영어 수업에 대한 관심 (n=133)

	전혀 없음	별로 없음	다소 있음	있음	매우 있음
n (%)	5 (3.7%)	31 (23.3%)	64 (48.1%)	17 (12.7%)	16 (12.0%)

표 8-2. 스포츠 영어 수업에 대한 관심이 없는 이유 (n=43)

	n	유효%
영어 자체에 관심이 없어서	12	27.9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 것 같아서	15	34.8
전반적인 학구열이 없어서	5	11.6
전공과 관련이 없어서	5	11.6
향후 전공관련 직무에 사용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3	6.9

6. 스포츠 영어 수업의 효과에 대한 기대도

[표 9]는 스포츠 영어 수업의 효과 기대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고 있는데, 영어 실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학생들이 ‘다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으며(51.1%)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18.8%)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또한, 스포츠 영어 실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도 가장 많은 학생들이 ‘다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으며(44.4%)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23.3%)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스포츠 영어 수업이 일반적인 영어 실력 향상보다 스포츠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좀 더 많았으나 두 항목 사이에 큰 차이는 없었고 이는 학생들이 스포츠 영어 수업이 스포츠 영어 뿐 아니라 일반 영어 실력도 향상 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9. 스포츠 영어 수업의 효과에 대한 기대도

	전혀 도움 안됨	별로 도움 안됨	다소 도움 됨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전반적 영어실력 향상	2 (1.5%)	18 (13.5%)	68 (51.1%)	25 (18.7%)	20 (15.0%)
스포츠 관련 영어 능력 향상	2 (1.5%)	15 (11.2%)	59 (44.3%)	31 (23.3%)	26 (19.5%)

V. 결론

본 연구는 스포츠 관련 학과 대학생들의 영어와 스포츠 영어 수업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스포츠 영어 수업에 대하여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스포츠 관련 전공 4학년 학생 133명이 설문에 응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스포츠 영어 수업 제안은 다음과 같다.

1. 학생들의 흥미유발: 영어에 대한 흥미도가 다른 항목들과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므로, 효과적인 스포츠 영어 수업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흥미도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스포츠 영어 수업 개발을 할

때에는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스포츠 전공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스포츠 관련 소재를 다루거나 흥미있는 교재와 수업 방법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영어 교육 전공자들과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2. 학생들의 실력을 고려하고 자심감을 고취: 대부분의 학생들이 본인들의 말하기와 듣기 실력에 자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흥미도와 관심도와도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스포츠 영어 수업에 대한 관심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학생들이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따라가기 힘들어서'라고 응답했고 '영어에 관심이 없어서'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전공과 관련이 없어서' 나 '향후 전공 관련 직무에서 영어를 사용할 일이 없을 것 같아서'는 매우 적은 수의 학생들만 응답하여, 학생들이 스포츠 영어 수업에 관심이 적은 이유가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본인들의 영어 실력이 부족하거나 흥미가 없어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스포츠 영어 수업 개발 시에는 학생들의 실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학생들의 흥미도 높이고 실력에 맞지 않는 수업으로 학생들의 자신감을 떨어뜨리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3. 국제 사회에서의 의사소통, 교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목표 설정: 스포츠 전공자들에게 영어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그 이유로는 '운동선수나 지도자로서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 가장 많았고 '국제 스포츠 교류나 외교, 행정'이 그 뒤를 이었다. 따라서 스포츠 영어 수업의 방향이나 목표 설정 시 이를 고려하여 듣기나 말하기 연습에 초점을 두거나 의사소통 중심 영어 교수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4. 스포츠 관련 직무 분석을 바탕으로 한 영어 수업: 일반적인 영어 수업과 차별화 된, 즉 스포츠에 초점을 둔, 스포츠 전공자를 위한 영어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문 항목에 대해서는 '다소 필요하다'가 가장 많았고 '필요하다'가 그 뒤를 이었다. 그 이유로는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와 '향후 전공 직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가 가장 많았다. 따라서 향후 스포츠 영어 수업을 개발할 때 철저한 직무 분석으로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영화와 김선재(2011)는 영어 실력은 국가가 국제 사회의 주역으로서의 위치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16]. 지금은 스포츠 분야에서의 영어 실력 향상으로 스포츠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여야 할 때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스포츠 영어 교육에 적합한 교수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17].

참고 문헌

- [1] 성명희, *학습모형-구두의사소통기능 향상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 [2] 정철자, "시장 수요 조사에 근거한 한국형 의료통역 연구", *번역학연구*, 제11권, pp.151-172, 2010.
- [3] D. Douglas, *Assessing language for specific purpos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 [4] A. Brown, "The effect of rater variables in the developments of an occupation specific language performance test," *Language Testing*, Vol.12, No.1, pp.1-15, 1995.
- [5] 김현진, 성명희, "현장 친화적 ESP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모형 연구", *영어영문학연구*, 제48권, 제1호, pp.85-104, 2006.
- [6] T. Dudley-Evans and M. J. St. John, *Developments in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 [7] 유근선, "학습자 관점의 실무영어 학습에 대한 현황 연구", *비서학논총*, 제9권, 제2호, pp.69-91, 2000.
- [8] 전지현, "비즈니스 영어(EBP) 교육에 관한 기초 연구 영어교육연구", 제14권, 제1호, pp.213-228,

2002.

- [9] 최경희, "관광영어 교과과정 개선을 위한 요구분석", *영어어문교육*, 제12권, 제3호, pp.243-266, 2006.
- [10] 황혜진, "특정목적의 영어학습을 위한 내용 중심의 언어교수법에 관한 연구", *비서학논총*, 제10권, 제1호, pp.87-99, 2001.
- [11] 황혜진, "컨벤션 영어에 관한 연구", *비서학논총*, 제11권, 제1호, pp.143-155, 2002.
- [12] Hutchinson and Waters,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 [13] 김현진, 이종복, 윤재홍, "취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실무형 ESP 교육과정 개발", *현대영어영문학*, 제50권, 제2호, pp.151-175, 2006.
- [14] 신동일, "비원어민교사들의 영어수업 진행능력 평가영역개발: ESP 관점에서", *영어교육*, 제58권, 제4호, pp.61-98, 2003.
- [15] J. Munby, *Communicative syllabus desig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8.
- [16] 이영화, 김선재 "영어능력과 국가경제성장과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권, 제1호, pp.329-339, 2011.
- [17] 강문구, "영어교육의 교수방법 지식지도 서비스를 위한 온톨로지 모델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1호, pp.502-509, 2013.

유 호(Ho Yoo)

정회원



- 2007년 10월 : Deutsche Sporthochschule Koeln(체육학 박사)
- 2008년 9월 ~ 현재 : 가톨릭 관동대학교 스포츠레저학부 교수

<관심분야> : ESP, 스포츠교육정책, 사회체육

저 자 소 개

김 지 은(Ji-Eun Kim)

정회원



- 2004년 5월 : The University of Texas(언어학 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가톨릭 관동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 영어교육, ESP, 음성학